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김태영 국방장관이 준 감동

국군총신도회장으로 국군불교의 수장역할까지 맡고 있는 김태영 신인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청렴성과 도덕성이 진지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총리 및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는 달리 도덕성과 관련 '무결점'으로 인정받았다. 김 장관은 사회에서도 흔한 위장전임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이들은 육군 병장 만기 제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김 장관의 도덕적 결함을 찾기 위해 조사하던 중 '과속운전 고지서 발부'만을 찾아내는데 그쳐 '도덕적 결함 찾기'를 아예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군의 주요요직을 거치고 합참의장까지 역임한 그가 살고 있는 집이 20평형대 아파트인 것은 세간의 화제거리까지 됐다.

이러한 이유에서일까. 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각종 정치 공세가 오간 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달리 시종일관 '정적 청문회'로 진행됐다. 후보자들의 도덕적 결함을 밝히는 신변 논쟁만이 난무했던 그동안 정치권의 인사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신선한 바람이었음이 분명하다. 정치권은 물론 국방부 등 관

련부처에서도 이번 임명을 두고 '환영'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주요 야전지휘관과 참모, 육사교수, 정책부서, 군사외교, 전략 등 폭넓은 경험을 쌓은 이른바 '문무 겸비형' 군인이다. 영국 국방대학원과 독일 육사를 졸업한 실력을 바탕으로 통역 없이도 국제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영어 구사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무부처들은 수장인 김 장관의 청렴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 군 전력 구조 개편 등 현안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의 취임은 김 장관이 독실한 불자라는 측면을 떠나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불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반 시민들과 불자들은 94년과 98년 종단 사태를 지켜보고,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부 스님들의 비위사실에 염증을 느끼고 있을 터다. 한국사회 직업군에 대한 국민신뢰도 조사에서 소방관, 간호사 등에 미치지 못하는 19위를 차지한 '스님'이란 직업이란 직업은 이것을 반증한다. 총무원장 선거에 직면한 지금, 불교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김 장관 취임에서 보여진 '정성'이 아닐까.

태고종 집행부 구성 '시동'

인공 스님 원로회의 인준 통과... "종도 화합으로 이끌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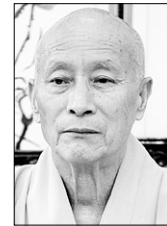
9월 22일 태고종 제 24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인공 스님이 집행부 구성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공 스님은 9월 29일 태고종 원로회의의 인준을 통과했으며, 이날 부원장 선임 등 집행부 구성의 초안도 함께 발표했다.

제13회 태고종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원 24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은 인공 스님은 이날 태고종 총무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떨어진 태고종 위상을 종도 화합을 통해 잘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부원장에 청봉 스님, 교무부원장에 법현 스님, 재정부원장에 화경 스님을 선임한 인공 스님은 "종도들의 뜻을 모아 부원장 스님들이 11월 정기중앙총회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부장 스님들은 10월 7일 열리는 전국 총무원장 회의에서 추천·임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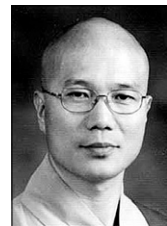
인공 스님은 태고종 제반사항과 조계종 선거일경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27~29일경 총무원장 이취임식을 가진 예정이다.



인공 스님.



청봉 스님.



법현 스님.



화경 스님.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공 스님은 현안문제에 대한 차기 집행부 기조도 밝혔다.

봉원사 부채 문제에 대해 인공 스님은 "10월 16일 법원에서 조계종과의 조정을 앞두고 있다. 현재 구역을 실측 중으로 조계종 안과는 큰 틀에서 바뀌지 않아 일단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단 위상을 새로이 제고하겠다"며 "투명한 총무행정으로 종단 안정과 화합, 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겠다. 종단이 어렵지만 한데 힘을 모아 헤쳐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정부원장에 선임된 청봉 스님은 1974년 천우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79년 목담 스님을 계

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고시위원회 위원, 중앙사정원 부원장, 경기동부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중앙포심원장을 맡고 있다.

교무부원장 법현 스님은 1985년 득도, 1991년 덕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총무부장, 교무부장, 사회부장, 교류협력실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열린선원 선원장으로 12대 중앙총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정부원장 화경 스님은 태고종립 선암사 강원 1기 졸업생으로 경기남부 화성, 오산 분원장과 총무원장 부위원장, 경기남부총무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남부총무원장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교계와 정부 소통 가교역 충실"

박재완 청불회장·주호영 특임장관 증정 예방

조계종 증정 법전 스님은 9월 26일 합천 해인사 퇴설당에서 청와대 불자회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주호영 특임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박재완 청불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한 난 화분과 선물을 전하며, "불교계 목소리와 정부 입장을 소통시키는 가교역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법전 스님은 "불교계는 합심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구축해야 한다. 굳은 불심과 현명한 판단으로



박재완 수석과 주호영 특임장관(왼쪽부터)의 예방을 받은 조계종법전 스님.

국정 최고책임자를 잘 보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해인사 주지석 스님, 심의조 합천군수 등도 배석했다.

노덕현 기자

금산사 일감 스님 국무총리 표창

템플스테이로 관광 활성화 기여

김제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 스님(사진)이 '제36회 관광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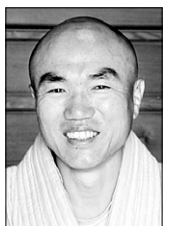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9일 특색 있는 템플스테이운영으로 국내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일감 스님에게 국무총리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은 한류 열풍의 주역인 텔러트 최지우 등 6명, 국무총리 표창은 일감 스님 등 11명, 문화부장관 표창 110명, 한국관광공사사장 표창 38명,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표창 65명, 관광진흥법 5개사 등에도 수여됐다.

일감 스님은 전통을 오롯이 살리며서 총명상, 화전놀이, 일출맞이 템플스테이 등 계절에 따른 특화된 프

로그램을 운영하며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따라 금산사 템플스테이는 2007년 4000명, 2008년 5000여 명 등 매년 참가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금산사는 10월 10-11일 금산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추억의 템플스테이-앞아빠라! 처처가 꽃밭이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먹물들이기, 작은 산 사육약화, 일감 스님의 산사토크, 무심 스님의 초창법문, 풍물장터, 사찰음식 3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063)548-4442



최우수상에 박세운씨 '자유마을'

민추본, 7일 제2회 평화통일사진 공모전 시상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는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갤러리 '나무'에서 '2009년 제2회 민추본 평화통일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민추본은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바탕으로 '2009 민추본 평화통일사진 공모전 당선작 및 복년사상 전 시회'를 개최한다"며, 최우수상에 박세운씨의 '자유마을'(작품명) 등 15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

했다고 밝혔다.

민추본은 "2회째를 맞는 이번 평화통일사진 공모전은 작년도에 많은 수의 작품이 출품됐고 작품의 질도 높아졌다"며 아울러 "사진전이 '10.4선언'일에 즈음하여 개최됨으로써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10월 7-9일 수상작품 및 복년동포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이 조계사내 갤러리 '나무'에서 함께 전시된다.

박선주 기자



제2회 민추본 사진공모전에서 최우수상에 당선된 박세운 작 '자유마을'.

혜자 스님 재임

도선사 주지 임명받아

혜자 스님이 도선사 주지에 재임됐다.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9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지관 스님은 임명식에서 "108산사 순례를 이끌어 불교 위상을 높이고 불교적 도움뿐만 아니라 지역 토산물 구매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줬다"며 "매년 100여대의 버스가 가는 등 많은 인원이 움직여 집행하는 고생이 많다. 임기 동안 무탈히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혜자 스님은 "첫 순례 이후 3년이 지나, 얼마 전 37번째 순례로 범어사를 다녀왔다. 계속 열정을 갖고 순례 회향까지 무탈히 회향토록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이 '제21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10월 13-21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 분야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계층포교분야 △군, 경찰, 직장직능 등 직능포교분야 △미술, 건축, 음악,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문화체육포교분야

△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등 사회포교분야 △방송·언론, 출판·인쇄, 인터넷 등 매체포교분야다. 추천서류는 포교원(www.buddhism.or.kr)으로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10월 21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된다. (02)2011-1894

이상연 기자

달아오르는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buddhanes.com에
빠르고 정확한 기사가 있습니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이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은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ONENESS KOREA

'하나됨으로 사는 삶'

LIVING IN ONENESS

10월 30일, 31일 11월 1일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전 세계적인 원네스 강연자 아난다기리지의 3일 컨퍼런스를 통해 당신의 삶 속에 부, 건강, 사랑과 행복이 더욱 넘쳐흐르는 소중한 기회를 잡으세요!

115개의 국가, 1억5천만명의 삶에 변화를 주고 있는 원네스현상을 지금 경험하세요!

■ 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지는 특별 원네스과정을 통해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 삶에 대한 법칙 터득하기
- 부모, 배우자, 자식, 동료들의 관계회복 및 치유
-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 자신을 포함한 모든것과 하나됨 이루기

- 일 시 : 2009년 10월 30(금), 31(토), 11월 1(일)
- 장 소 :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1층 대강당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 강 연 자 : 아난다기리지(인도 원네스 유니버시티 강연자)
- 금 액 : 95만원 (입금 선착순 자리배정)
- 홈페이지 : www.onenesskorea.com
- 예약문의 : tel- 070-8244-8020

mail-onenesskorea@gmail.com
카페-http://cafe.naver.com/onenesskr

주 최 : ONENESS HOME 및 이워홈 협력업체 ONENESS UNIVERSITY